



맹물 옆에 콩짱 옆에 깜돌이 이소완 지음, 모여진 그림

< 독후활동지 >

1. 다음 낱말을 넣어 짧은 글을 지어보세요.

반려동물	
별명	
아저씨	

2. 맹물은 싱겁고 눈물이 많다는 뜻으로, 콩짱은 몸집은 콩알만 한데 기운은 짱짱하다는 뜻으로 두 친구가 서로 지어준 별명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친구와 서로 별명을 지어준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뜻으로 지은 별명인지, 지금 내가 나에게 지어주고 싶은 별명은 무엇인지 적어 봅시다.

친구에게 지어준 별명:	이유:
내가 지은 나의 별명:	이유:

3. 강아지와 함께 사는 반려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인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꼭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알고 있는 대로 적어 보세요.

4. 검색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다.

동물 보호 센터	
유기견	
무지개다리	
품종	
펫티켓	
요양 병원	
항암	

5. 감돌이를 돌보면서 얼썬 아저씨와 맹물과 콩짱이 친해지고, 할머니와 그냥 씨와도 친해져서 같이 자주 만나 시간을 보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 주기도 하면 서요. 여러분도 혹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이웃이나 친구와 친해지게 된 경험이 있나요?

언제, 어떤 일로, 누구와 친해지게 되었나요?	
어떤 사이로 지내고 있나요?	

6. 왜 제목을 ‘맹물 옆에 콩짱 옆에 감돌이’라고 지었을까요?



7. 콩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냥’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부모님이 하시는 말 중에 싫은 말이 있나요?

더욱이 나는 ‘그냥’이라는 말이 싫었다. 그 말만 들으면 짜증이 났다. 아빠 때문이다. 아빠한테 뭘 물어보면 대답이 늘 ‘그냥’이었다 “아빠, 저녁에 뭐 먹어?”하고 물으면 “그냥 있는 거.”라고 말했고, “주말에 놀러 가자.”하고 말하면 “밖에는 사람 많아. 그냥 집에 있자.” 이런 식이었다. 뭐든 다 그냥 넘어가는 식이다.

싫은 말:

이유:

8. 그냥 씨는 깜돌이가 그냥 좋다고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지만 그냥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떠올려서 몇 가지 적어 보세요.

♡

♡

♡

9.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건 참 든든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은우(콩짱)는 오랜만에 만난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기 옆에 맹물과 깜돌이가 있다고 하며 엄마 옆에는 누가 있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옆에는 누가 있는지 떠올려서 “00 옆에 00옆에 00옆에”와 같은 식으로 적어보고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 주고 있는지도 적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옆에 ~옆에) :

♡힘이 되어 주는 이유:

10. 맹물, 맹물 엄마, 맹물 아빠, 콩짱, 콩짱 엄마, 콩짱 아빠, 얼썩 아저씨, 할머니, 그냥 씨, 감돌이 중에서 가장 마음이 가는 인물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 보세요.

11. 이 책에서 가장 감동적이었거나 인상적인 장면을 골라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남는 문장도 찾아서 적어 보세요.

내가 고른 장면	
마음에 남는 문장 ()쪽	

